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6차확대회의 소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확대회의 지도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우리 나라의 동해안과 북부내륙의 여러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준 태풍 9호로 인하여 함경남도 검덕지구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관련하여 9월 8일 오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적인 피해 복구대책을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회의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검덕지구의 상황을 상세히 통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예상치 않게 들이닥친 태풍피해로 하여 부득이 우리는 국가적으로 추진시키던 연말투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투쟁방향을 변경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검덕지구를 하루빨리 복구하는것은 그곳 인민들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중요명맥을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하여야 할 급선무이라고 하시면서 적어도 10월 10일까지는 새 살림집들의 체모를 갖추고 도로와 철길을 복구



하며 연말까지는 모든 피해를 100% 가실수 있는 국가적인 비상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검덕지구의 피해와 복구건설 규모를 검토하고 복구건설을 또다시

인민군대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인민군대만이 또 하나의 전선을 전개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검덕지구에 과전할 인민군부대들의 역량전성과 복구건설업무, 료전기재와 건설기재들의

보장 및 기동대책, 세멘트와 연유를 비롯한 건설자재보장대책, 료대수송대책 등을 규정하고 검덕지구피해복구지휘조를 조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의 자연재해복구건설에 급파된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철야복구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복구건설 성과들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소개하시면서 이와 같은 기세라면 당에서 결정한 대로 피해복구사업을 10월 10일까지 빛나게 결속하게 될것이며 검덕지구에서도 올해를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는 마지막승전포성이 장엄하게 울리게 될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태풍피해복구에 동원된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혁명무력답게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당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헌신분투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8차대회 전으로 성스러운 전투임무를 빛나게 결속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태풍피해복구투쟁과 관련한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서에 친필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의 태풍피해복구투쟁은 조국보위이고 인민보위라고 하시면서 자연의 광란이 아무리 사납고 우리에게 도전과 시련이 중중첩첩 막아나선다 해도 일심단결, 군민일치의 위대한 전통의 기치를 틀어쥐고 반드시 영예로운 승리가 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태풍9호에 의한 자연재해복구전투조직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현지에서 소집하시고 피해지역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태풍9호에 의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자연재해복구전투조직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피해지역현지에서 소집하시고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태풍9호에 의한 폭우와 강풍으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관련하여 즉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현지로 파견하시어 부문별 피해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도록 하시였다.

9월 5일 함경남도 태풍피해지역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로부터 현지에서 료해장악한 태풍피해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에서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피해복구문제

가 심도있게 토의되었으며 이 지역들에 급과할 건설력량편성문제와 설계, 자재수송보장문제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문제들을 연구확정하고 결정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피해복구사업을 자연재해를 털어버리기 위한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복구건설과정만이 아닌 중요한 정치사업과정으로,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과 언제나 곁을 함께 하며 이겨내는 고상한 정신도덕적 미덕을 사회주의국풍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도 수도에서 지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 마땅히 당원들 특히 수도의 당원들이 앞장서는것이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당중앙은 평양시의 핵심당원들에게 수도당원사단을 조직하여 펼쳐나설것을 호소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도의 당원들이 당중앙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피해지역복구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면서 지방의 당원들, 로동계급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된 모습을 남김없이 파시할것이라고, 우리 수도의 당원들이 당창건 75돐 명절과 당 제8차대회를 앞두고 성스러운 성전에서 수도의 당원들답게 한목단단히 할것이라는 믿음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몇해전 북부 피해복구전투때와 같이 이번에도 수송부문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완강하게 내밀어 복구용자재들을 건설에 지장이 없이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주요복구건설용 자재수요를 라산해보시고 보장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에 충실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피해복구전투에 부르는 당중앙

군사위원회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회의를 마치고 함경남도 태풍피해지역들을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입은 해일피해가 보여주듯이 지금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해안연선지대들의 안전대책이 불비하고 해안방조제들이 제대로 건설되지 못하였다고 엄하게 지적하시면서 이 문제도 장차 우리가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틀어쥐고 시급히 대책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자연의 광란이 들이닥칠수 있는 조건에서 전망적으로 수륙선과 가까이 있는 주민지들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해보고 고려하면서 안전지대로 이동시킬 계획을 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일과 태풍 영향으로부터 주민지역들과 농경지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구적인 해안조물들을 질적으로 일떠세우자면 해양 및 수리공학부문의 과학연구단위들과 함, 부두방파제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연구소들을 망라하여 해안방조제와 항만방파제를 표준공법대로 건설하기 위한 연구와 설계를 잘하도록 하고 국가적력량을 동원하여 년차별계획에 따라 건설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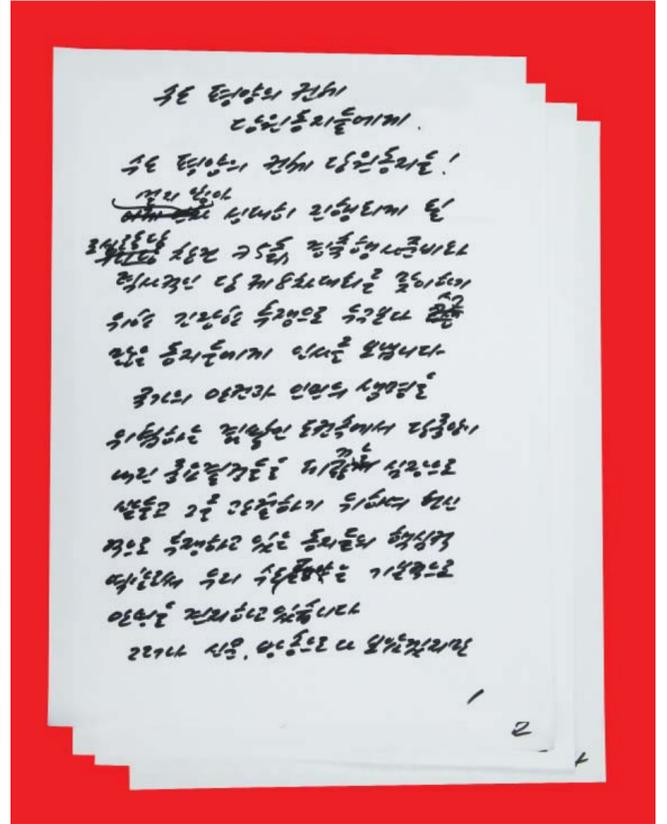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태풍피해를 받은 농작물들의 생육상태에 대하여 료해하시면서 소출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기술적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세움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연의 광란이 이토록 엄혹하고 막아서는 시련이 아무리 많아 해도 우리 당과 인민은 반드시 일심일체가 되어 위대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며 전진할것이고 우리 국가는 반드시 더욱 부강번영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시었다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동지들!
멀지 않아 성대히 진행되게 될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행사준비와 역사적인 당 제8차대회를 맞이하기 위한 긴장한 투쟁으로 누구보다 수고많은 동지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겹쌓인 도전속에서 당중앙이 내린 중요한 결정들을 피뎌는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동지들의 핵심적역할로써 우리 혁명의 수도 평양은 기본적으로 안녕을 견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으로 다 보았겠지만 최근 련이어 들이닥친 큰물과 태풍에 의하여 나라의 여러 지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것을 가시기 위한 맹렬한 복구전투가 벌어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재차 들이닥친 태풍9호로 인하여 동해안에 위치한 강원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에서 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함경남도에서는 단천시와 신포시, 흥원군을 비롯한 10여개의 시, 군들에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침수과파되어 수많은 수재민들이 한지에 나앉아있습니다.
무너진 살림집만 하여도 1, 000세대가 넘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피해는 다름바 없다고 합니다.
태풍9호가 수천리밖에서 북상할 때부터 긴장하게 예의주시하면서 취할수 있는 예비대책을 강구하였지만 예상밖의 폭우와 강풍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시도 지체하면 안되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더구나 사회의 많은 기본건설력량과 인민군부대들이 이미 강원도와 황해남북도의 피해복구현장들에 전개되어있는 형편에서 당중앙은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를 강력히 지원할 문제를 다름아닌 수도의 당원동지들에게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함경남북도에도 수많은 당원들과 당조직들이 있고 로동계급의 기본부대들이 있으며 그들도 역시 당중앙의 의도를 알고 피해복구투쟁을 잘할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중앙은 당중앙위원회를 제일 가까이에서 보위하고있는 친위대오인 수도의 핵심당원들이 기치를 들고 피해복구현장에 진출하는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라의 모든 지역이 항상 자기의 심장인 수도를 각방으로 보위하는것도 국공이지만 어려울 때 수도의 인민들이 합들어하는 지방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부축하고 고무격려하는것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도당원들은 우리 당이 제일 믿는 핵심력량입니다.
수도당원들이 당의 호소를 받들고 피해현장에 나가 투쟁하면 자연이 돌아온 파괴적인 재앙으로 입은 경제손실에 비할바 없는 거대한 힘을 얻게 됩니다.
평양에서 천리행군해간 수도당원들이 현지에 도착하지만 해도 그곳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가 될것이며 시련과 난관을 함께 이겨내고 타개해나가는 속에서 전당의 단결이 뜻과 정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게 될것입니다.
올해에 들어와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지속되고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어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당과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이 모든것을 과감히 극복하고있습니다.
올해는 결코 재해와 재난의 해가 아니라 초긴장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더욱 굳은 단합을 이룩하는 투쟁의 해, 전진의 해, 단결의 해입니다.
75성상 승리의 고지마다에 날려온 우리의 당기는 결코 세월의 바람에 나뭇겨온것이 아니라 당중앙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림없이 산악처럼 떨쳐일어나 특출한 공헌으로 화답해온 우리 당원들의 거세찬 충성과 애국의 숨결로 휘날려온것입니다.
우리 당과 혁명투쟁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중대한 승리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는 결정적이고도 책임적인 시각에 수도의 당원들이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어야 합니다.
당중앙은 조선로동당창건 75돐과 당 제8차대회를 결렬히 보위하기 위하여 우리의 수도당원동지들이 들고 일어나 재해를 당한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전투로 용약 달려나갈것을 부탁합니다.
10월 10일이 눈앞에 박두하였는데 형편이 곤란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새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북도의 수많은 인민들이 한지에서 명절을 쇠게 할수는 없습니다.

당의 걱정과 보살핌의 손길로, 수도 평양의 따뜻한 정으로 피해지역 인민들을 극진히 위로하고 한시바베 재단을 털어버리도록 정성다해 지원하고 투쟁할것을 당중앙은 수도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수도 당원동지들!
지금은 우리 인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가져주기 위한 피해복구전투가 벌어지는 전구가 바로 우리 당이 전력을 투하해야 할 최전선입니다.
때문에 당중앙은 수도의 우수한 핵심당원 1만 2, 000명으로 함경남북도에 각각 급파할 최정예수도당원사단들을 조직할것을 결심하였습니다.
평양시당과 구역당들, 시급, 구역급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과 당원들은 누구나 이 전례없는 전투대오에 단원하여 당조직의 추천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정예수도당원사단들이 전구어로 떠나기 앞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계시는 성지의 마당에서 필기모임을 열고 충성의 맹세를 다지며 피해복구현장으로 진출해나가면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실것입니다.
동지들이 현장에 가서 해야 할 주되는 과업은 피해복구전투에 떨쳐나선 근로청년들과 군인들의 앞장에서 당정책관철의 선봉이 되고 불씨가 되는것입니다.
동지들은 수도의 핵심당원들답게 현장진출로부터 철수에 이르는 전기간 복구투쟁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넘치는 기백과 질서정연한 행동으로써 훌륭한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이번엔 입을 화를 북으로 전환시켜 더 좋은 살림집,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려는 당중앙의 진정을 잘 알려주고 그들이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복구사업을 벌려나가도록 성의껏 도와주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현지주민들에게 부담을 끼치거나 도와주는 리를 내지 말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처신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지방인민들의 강인한 생활기풍과 기질도 배우면서 수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과 선진기술기능을 성실하게 배워주어야 합니다.
이번엔 과전되는 수도의 최정예당원사단들이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을 기본으로 하게 되는것만큼 전문건설부대들에서 복무하고 제대된 건설기능이 높은 당원들로 사단의 직속부대를 조직하여야 합니다.
사단 직속부대는 높은 건설공법과 기능뿐아니라 모든 작업을 책임적으로 간지게 하는 교육자적인 일본새로써 맡은 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할것이며 전반적복구공사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지방건설자들에게 앞선 건설기능을 아낌없이 넘겨주어야 하겠습니까.
성, 중앙기관의 당원동지들도 피해복구현장에 나가는 전투원이라는 자세에서 복구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물자들을 제때에 신속히 보내줌으로써 수도에서 일하는 당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까.
함경남북도의 인민들을 도와주자고 수도의 우수한 당원들로 조직된 사단들을 과전하지만 제일 걱정되는 것은 동지들의 건강입니다.
생산현장과 실천투쟁에서 많이 단련되고 검증된 당원들이라 해도 재앙이 휩쓴 험지에서 가을바람을 맞으며 철야전투를 해야 하는것만큼 힘드고 피곤할수 있습니다.
당원사단들을 이끄는 지휘관들과 정치일꾼들은 매 대원들의 건강과 생활에 세심한 주의를 돌리고 다심한 심정으로 돌보아주어 당원동지들이 모두 건강한 몸으로 전투를 결속하고 수도 평양으로, 정다운 집으로 돌아갈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나는 당중앙이 직접 조직하여 함경남북도에 과전하는 수도의 최정예당원사단들이 조선로동당창건 75돐 명절과 당 제8차대회를 결렬히 보위하는 별동대로서 부여된 영예로운 사명과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리라 믿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위대한 우리의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의 일심단결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의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의 10월명절을 위하여
성스러운 투쟁으로 용감히 나아가십시오!
수도 당원동지들, 앞으로!

김 정 일

2020년 9월 5일

평도자의 호소에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

천 아버지의 따뜻한 정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헤치며

경에 하는 최고평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또다시 태풍피해현장을 찾으시어 그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신 소식이 전해져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지난 8월초에는 큰물피해를 입은 은파군 대청리를 찾으시고 8월말에는 태풍8호에 의한 피해상황을 알아보시러 황남평의 포전길을 걸으시더니 9월초에는 려차강행군으로 태풍9호에 의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를 찾으신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현지에서 자연재해복구전투를 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피해지역을 돌아보시었다. 그리고 현지에서 함경남도 피해복구를 위하여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시었다.

천혈육의 사랑인들 이보다 더 뜨겁고 절절하겠는가. 피해지역 인민들의 부모, 형제, 친척들도 미처 다는 알지 못하고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불행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고있던 그때 그이께서는 피해복구건설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공개서한에서 10월 10일이 눈앞에 막두하였는데 형편이 곤란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새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북도의 수많은 인민들이 한지에서 명절을 쇠게 할수는 없다고, 지금은 우리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가서주기 위한 피해복구전투가 벌어지는 전구가 바로 우리당이 전력을 두라해야 할 최전선이라고 하시었다.

그이께서 보내신 공개서한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이다.

하기에 공개서한에 접한 사람들은 《인민들을 위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에 눈물이 저절로 나왔다. 그 품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세상에 없을것이다.》, 《정말이지 우리 원수님의 품은 온 나라 인민들이 순간도 떠나서 살수 없는 운명의 품이라는데를 다시금 절감하였다.》고 격정을 다치었다.

이 나라 천만식물 한사람한사람을 자신의 귀중한 살비로 여기시고 그들의 커가는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멸사복무의 길을 걸고계시는 인민의

평도자이시기에 인민이 당한 불행 행을 가서주는것을 한시도 미룰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내세우시는것이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5년전 라선시에 큰물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나라의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 문제를 토의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 큰물피해복구문제를 중요의정으로 토의하도록 하시고 즉석에서 피해복구전투지휘사령부를 조직해 주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그러시고도 하늘길, 배길, 땅길을 달려 2천여리나 떨어진 라선시 피해복구현장을 찾으시어 살림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수재민들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고, 자신께서 직접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는 그이 품은 온 나라 인민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그 다음해 함북도 북부지역에 또다시 큰물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온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수재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가서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군인들을 포함한 방대 한 건설력량과 수단들을 북부피

해지역으로 파견해 주신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올해에도 례년에 없는 큰물과 태풍으로 공화국의 적지 않은 지역에서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 재난과 불행에 우는 사람은 없다.

그이의 인민사랑의 공개서한에 접한 피해지역 인민들은 《태풍에 집이 무너져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고 걱정하였는데 원수님께서 우리들의 심정을 다 헤아리시고 집까지 지어주시다니 정말 꿈만 같았다. 당의 품이 나의 작은 요람까지 지켜주고있다는 시구절은 바로 이런 사랑을 두고 지은것 같았다. 정말 이제는 마음이 든든해진다.》, 《부모들도 이 란리통에 우리 집에 와보지 못하였는데 원수님께서 머나먼 길을 달리시어 동해바다의 자그마한 어촌마을을 찾아주시고 피해지역 주민들을 안착시키기 위한 사랑의 조치들을 취해주셨다. 우리 원수님만 계시면 그 어떤 재난도 두렵지 않다.》고 격정을 터치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다 말해 주고있다. 인민이 안겨사는 따뜻한 삶의 품이 무엇인가를.

세계적인 대유행전염병사태속에서 공화국에는 례년에 없이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려속 들이닥치었지만 공화국인민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더 좋은 레일을 건설해가고있다.

그 진두에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잠시의 휴식도 없이 애민헌신의 길을 걸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계신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지난 3월에는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의 첫삽을 뜨시었고 세계적 대유행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폭우와 큰물로 피해를 입은 여러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놓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몸소 피해지역들을 찾으시어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게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었다.

시련속에서 더 뜨겁게 품어안아주시는 위대한 아버지를 우리 러 인민은 수처치는 걱정을 더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이것이 오늘 더욱 굳세어지는 공화국의 민심이다.

위대한 평도자를 높이 모신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래일에 대한 심심과 락관을 안고 온 나라가 피해복구사업에 떨쳐나섰다.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 관들에서 피해복구에 수단과 력량을 총동원하며 빠른 기간에 결속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농업부에서 강풍에 의하여 넘어진 농작물들을 일으켜세우고 비배관리를 잘하여 알곡소출의 감소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앞섰기 해나가고있으며 전국적으로 파괴된 송전선계통과 도로들을 빨리 복구하고 손실을 입은 건물들의 개건보수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뿐만아니라 피해지역 살림집공사장들에서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한 인민군인들과 어깨걸고 치열한 철야전투를 벌려 대상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끝내기 위한 총동원전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지금 공화국인민앞에는 태풍피

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과 큰물피해복구전투를 동시에 내밀어야 할 어렵고도 방대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직면한 도전과 난관은 간단치 않다.

하지만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평도가 있고 평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총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기에 태풍과 큰물에 의한 피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는 확정적이다.

자연은 무서운 재해를 려속 몰아오지만 그 횡포한 자연의 광란을 길들이며 공화국은 더 큰 전진의 보폭을 내걸고있다.

말할만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전투에 평양의 당원들을 부르시면서 우리는 결코 재해와 재난의 해가 아니라 초긴장의 강고한 투쟁속에서 더욱 굳은 단합을 이룩하는 투쟁의 해, 전진의 해, 단결의 해라고 하시었다.

절세의 위인을 모시고 평도자와 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어 오늘의 난관을 이기고 이해에 더 크고 값진 승리를 안아오게 될 공화국이다.

시련속에서 더 뜨겁게 안아주는 손길

편이 들어닥친 큰물과 태풍으로 여러 지역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 땅에서는 추호의 비판이나 질망의 그림자도 찾아볼수 없다.

경에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그 어떤 재난도 이겨낼수 있다고 목매여 터치는 인민의 신념

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다.

온 나라 인민이 태풍피해현장을 찾으시어 피해상황을 료해하시고 한자 한자 몸소 쓰시어 수도 평양의 전체 로동당원들에게 보내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공개서한을 절하고 피해복구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평도자와 인민이 하나로 뭉친 현연일체는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국풍으로 되고있다.

이 현연일체의 위력난관을 이겨내며 더 큰 승리를 마중해가고 있다.

시련속에서 더 뜨겁게 인민들을 품어안아주고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당을 따라 려사의 준엄한 난국을 헤쳐온 공화국인민은 승리의 기쁨을 휘날리며 10월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게 될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김유성

수십만명! 함경남북도의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수도의 핵심당원들로 최정예사단을 조직할때 대한 경에하는 원수님의 공개서한이 발표된지 불과 몇시간만에 복구전역에 탄원해나선 수도의 당원들 수자이다.

단 하루동안에 1만 2 000명의 최정예수도당원사단들이 조직되어 현지로 떠나갔다.

한자 또 한자 그이께서 쓰신 공개서한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열과 정으로 온 나라 인민들을 따듯이 보살펴주는 천 아버지의 사랑이고 간곡한 부탁이다.

마디마디 진정이 넘치는 평도자의 공개서한은 누구나 눈물없이 볼수 없었고 감동없이 들을수 없었다.

하기에 서한을 접하자마자 수도의 당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이 한사

람같이 떨쳐나선것이다.

무릇 전쟁시기에도 한계 사단을 새로 조직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품이 드는것이 보통의 상식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전년도 아닌 평화시기에 그것도 불과 몇시간만에 수십만명이 탄원해나서고 단 하루동안에 최정예

리에 새겨달라고 청원한 당원들도 많다.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모두 당원이라며 집안식구모두를 피해복구전투장에 내보내달라고 제기한 당원들도 있다.

평도자의 부름이라면 논보라 만리길도 헤쳐가고 세찬 풍랑도 맞받아나가는것이 바로 경에하는 원수님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일하는 조선로동당원들이다. 자기 평도자를 한몸바쳐 보위하고 평도자의 구상을 맨 앞장에서 결사관철해가는 이런 수천수만의 당원들이 있기에 성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기쁨이 그 어디서나 세차게 휘날리고있다.

세상에 각이한 이름의 당은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평도자와 뜻과 정으로 이어진 이런 당원들을 가진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제일 강하고 위력한 당이다.

김진혁

승강도 떠나 살수 없는 운명의 품

경에하는 최고평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함경남도 태풍피해현장에서 진정을 담아 한자두자 정히 쓰신 공개서한을 받아안고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어려울 때 수도의 인민들이 힘들어하는 지방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부축하고 고무격려하는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풍

이라고 하신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맥박치는 우리 원수님의 공개서한!

세계도처에서 폭우와 큰물,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고 절망에 잠겨있을 때 어느 지도자가 자기 인민을 위하여

이렇듯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는 공개서한을 보낸적이 있었던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시는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은 그 끝을 알수 없는 무한대한것이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품은 순간도 떠나 살수 없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품이며 그 품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다.

평양326전선종합공장 직장장 리강진

정말이지 세상은 넓고 넓어도 우리 원수님이 제일이고 뜻과 정으로 화목한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제일이다.

우리 원수님따라 하늘 땅 끝까지 갈 투철한 신념을 안고 수도의 당원들과 힘을 합쳐 피해복구전투를 빠른 시일안에 끝내겠다.

홍원군인민위원회 부원 송금철

복구전역으로 탄원해나선 당원들중에는 평도자의 부름이라면 함경남북도가 아니라 이 세상 끝이라도 달려갈 우리 당원들이 아닌가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명단의 첫자

를 새겨달라고 청원한 당원들도 많다.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모두 당원이라며 집안식구모두를 피해복구전투장에 내보내달라고 제기한 당원들도 있다.

평도자의 부름이라면 논보라 만리길도 헤쳐가고 세찬 풍랑도 맞받아나가는것이 바로 경에하는 원수님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일하는 조선로동당원들이다. 자기 평도자를 한몸바쳐 보위하고 평도자의 구상을 맨 앞장에서 결사관철해가는 이런 수천수만의 당원들이 있기에 성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기쁨이 그 어디서나 세차게 휘날리고있다.

세상에 각이한 이름의 당은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평도자와 뜻과 정으로 이어진 이런 당원들을 가진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제일 강하고 위력한 당이다.

김진혁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눈물이 앞을 가리워 볼수가 없었다.

태풍9호가 휩쓸고간, 발목이 폭폭 빠지는 바다가의 험한 진창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피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우리 원수님.

혹심한 자연재해를 입은 함경남북도인민들을

두고 너무도 가슴아프고 쓰리시어 태풍피해현장에서 손수 한자 또 한자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신 그이의 심중의 세계가 흥벽을 세차게 두드려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다.

내 사는 고향은 평양과

멀리 떨어진 외진 바다가 한끝이여도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 가장 가까이 에 내가, 아니 우리모두가 안겨있구나, 그이의 따사로운 품이 나의 작은 요람까지도 지켜주고있구나 하는 끝없는 행복감에 로동당만세소리가 절로 울려나왔다.

평양326전선종합공장 직장장 리강진

평양326전선종합공장 직장장 리강진

평양326전선종합공장 직장장 리강진

평양326전선종합공장 직장장 리강진

오가는 혈연의 손길

에 안고 산다.

조국보위의 총을 멘 초병들은 자기가 지켜선 초소의 길이 원수님 계시는 수도 평양으로 가는 길과 잇닿아있다는것을 항상 생각하며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고있다. 영웅한 비행사들도 우리의 날개우연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아래 평양이 있다는 노래를 즐겨 부르며

수행결사우위의 항로를 힘차게 날고있다.

조국의 방선을 지켜선 초병들만은 아니다.

복창의 로동계급은 평양의 밝은 불빛을 지켜 발전기들의 동음을 더욱 힘차게 울려가고있고 2.8직동청년랑을 비롯한 각지의 란광들에서는 평양을 항상 마음속에 그리며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고있다.

나라의 대규모과일생산기지인 과일군에서는 해마다 첫물과일들을 알알이 플라 수도 평양으로 보내고있으며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지금이 시각 평도자의 인민사랑에 의해 날마다 몰라보게 달라지는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기 위해 밤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어디 이뿐인가. 황금해의 새 려사속에 각지의 수산부문에 사는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의 식탁위에 사회주의 바다향기가 넘쳐나게 하기 위해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수도 평양에서도 지방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의 손길을 아끼지 않고있다.

백두산아래에 회한하게 일떠선 삼지연시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 넘쳐나는 거창한 시대의 창조물들마다에는 평도자의 뜻과 구상을 받들어 온 나라를 더욱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의 남피려고 기울이는 수도시민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헌신의 땀방울들도 무수히 깃들여있다.

최근 공화국에서 큰물과 태풍으로 여러 지역이 재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수도의 각계층 인민들은 많은 생활용품, 자금 등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줌으로써 지방인민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

공화국에서 수도와 지방은 하나의 뜻과 승결로 이어져있다. 오가는 혈연의 손길은 온 나라를 감동시키고있다. 이것은 평도자를 중심으로 온 나라 인민이 굳게 뭉친 현연일체의 또 하나의 감동적인 화폭이다.

김기철

김기철

김기철

김기철

화를 복으로

전반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피해에 당하였을 때에는 집과 가산을 잃은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지 않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도록 하시며 피해복구도 원상대로가 아니라 더 훌륭히, 더 멋지게 건설하여 화가 복이 되도록 하시었다.

전반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피해에 당하였을 때에는 집과 가산을 잃은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지 않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도록 하시며 피해복구도 원상대로가 아니라 더 훌륭히, 더 멋지게 건설하여 화가 복이 되도록 하시었다.

전반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피해에 당하였을 때에는 집과 가산을 잃은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지 않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도록 하시며 피해복구도 원상대로가 아니라 더 훌륭히, 더 멋지게 건설하여 화가 복이 되도록 하시었다.

전반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피해에 당하였을 때에는 집과 가산을 잃은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지 않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도록 하시며 피해복구도 원상대로가 아니라 더 훌륭히, 더 멋지게 건설하여 화가 복이 되도록 하시었다.

전반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피해에 당하였을 때에는 집과 가산을 잃은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지 않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도록 하시며 피해복구도 원상대로가 아니라 더 훌륭히, 더 멋지게 건설하여 화가 복이 되도록 하시었다.

전반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피해에 당하였을 때에는 집과 가산을 잃은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지 않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도록 하시며 피해복구도 원상대로가 아니라 더 훌륭히, 더 멋지게 건설하여 화가 복이 되도록 하시었다.

전반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피해에 당하였을 때에는 집과 가산을 잃은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지 않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도록 하시며 피해복구도 원상대로가 아니라 더 훌륭히, 더 멋지게 건설하여 화가 복이 되도록 하시었다.

이 나라 민심의 바다에 절세위인의 위대한 헌신의 모습, 거룩한 자욱자욱이 우렁이 새겨진 천만심장을 격동시키고 있다.

큰물파해를 입은 은파군 대청리와 태풍이 휩쓴 황남 땅에 인민사랑의 자욱을 새기고 또 얼마전에는 함경남도의 태풍피해현장을 찾으며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서한까지 보내주신 인민의 아버지!

활활 타오르는 불길마냥 언제나 사랑과 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그 위대한 장정의 보복속에서 이 땅에 자연의 광란은 덮쳐들었어도 온 나라 인민들의 얼굴마다엔 밝은 웃음이 떠날 줄 몰랐고 남녀로소 누구나 그 위대한 심장에 운명의 숨줄을 잇고 행복에 겨워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를 한껏 터치고 있다. 너무도 평범한 인품에, 너무도 순결하고 용감처럼 뜨거운 특유의 인정미에,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한한 헌신의 세계에 사랑을 나누다가 눈시울을 적시며 인류사의 최고 높이에서 길이 빛날 불멸의 위인상을 본다.

서방의 한 언론인은 자기의 글에서 인류정치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정치가, 국가사업에만 전심전력한 국가수반과 해도 그가 누구이든 후사를 철칙으로 여겼다고 썼다. 오늘날 이 세상 그 어디를 돌리보아도 자신의 한몸을 초월처럼 불태우시며 명절날, 휴식일도 따르없이 오로지 인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랑과 헌신의 대장정을 불철주야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과 같은 인민애호자의 령도자는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헌신의 인민행정정은 인류사에 그 류례가 없는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령정이다. 세상에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한생도록 정력을 쏟아부었다는 위인은 있었어도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하였다는 위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인민의 아버지만이 더러울 수 있는 심장의 토로인 열사복무!

성스러운 열사복무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란 시대가 세상에 태어나 사람들에게서 불리워지게 된 것은 어느때부터였는가. 절세위인의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령정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들이 세인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며 시대를 격동시켰던가.

주체103(2014)년 1월 어느 날이었다. 평범한 이 하루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집무탁을 마주하시었다. 그이의 집무탁에는 인민들의 생활의 단편을 담은 사진들이 놓여있었다.

물고기차를 맞이해 기뻐하는 보양생들, 생선국에 술을 뜨며 좋아하는 애들, 저저마다 활을 다루며 공급받은 물고기를 날라가는 과학자 가족들의 모습...

인민군대에서 마련한 물고기를 받아내고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고 또 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 기쁨의 미소가 어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진들을 다시금 정겹게 바라보시다가 문득 펜을 드시었다. 그러시고는 백옥같이 희던 종이위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써나 하시었다.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어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 것 같고요.

그이께서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었다. 평생토록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인생을 초월처럼 불태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 념민을 이 땅위에 거어어 꽃피우실 억척의 신념을 가다듬으시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시 펜을 드시었다.

그러시고는 인민에 대한 헌신의 의지를 담아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뛰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을 더 잘해나

가자고 힘주어 쓰시었다. 열사복무! 력사에 전무후무한 이 말은 이렇게 태어났다.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 인민에 대한 사랑의 열도를 론하고 지적하시었고 홀을 보시면서는 홀을 넓게 꾸리고 거기에 승마복도 대어해주고 필요한 상품도 팔아주게 하면 좋겠는데 홀을 작게 꾸리고 필요없는 방들만 꾸러놓았으니 아이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되었고, 설계가들이 설계를 하면서 머리를 쓰지 않으니 봉사전열을 열기기로 만들어놓았다고

이런 복무는 인류력사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일찍이 있어보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있어서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는 그 어떤 직책상의무기전에 한평생 인민을 하물처럼 내세우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강고히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도덕의리이고 형언할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일관당신 년도자만을 믿고 따랐은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살게 될 대양민족의 후손들에 대한 책임성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이 숭고한 도덕의리, 충실성, 책임성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하루하루가 초인간적인 정력과 로고로 수놓아지고 이 땅위에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근본요인이다.

이 땅위에 마련된 모든 기적과 행복의 열매들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철칙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만고생과 바꾼것이라는 철칙이 열사복무라는 이 시대에 그 대로 비껴흐르고 있다.

2013년 10월 어느날의 깊은 밤이었다.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을 책임진 일꾼들은 좀처럼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방금전 이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이 걱정을 꺼쳐드렸던 것이다.

조절하게 하시던 그이의 질책의 말씀이 그냥 귀에서 메아리쳤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꽃피우는 길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공화국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기에 인민군대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들마다에서 언제나 돌격대, 선봉대가 되어 날에 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고 있다. 그 앞에는 언제나 가장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라고 웨치며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는 지휘관들도 있다.

인민의 행복을 가꾸어가는 참된 복무의 길에서 자기의 전투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남김없이 발휘해가고있는 미더운 군인들.

이런 인민군대가 있어 조국과 인민의 안녕은 철통같이 지켜지고 이 땅에서 행복의 웃음소리는 날이 커가고 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봉사전열에 가시어서는 봉사전열을 바깥벽에 통나무를 댔는데 창문 앞부분과 일부분에만 대다나니 보기 싫다고, 통나무가 모자라서 채 붙이지 못한것 같은감이 든다고 지적하시었고 홀을 보시면서는 홀을 넓게 꾸리고 거기에 승마복도 대어해주고 필요한 상품도 팔아주게 하면 좋겠는데 홀을 작게 꾸리고 필요없는 방들만 꾸러놓았으니 아이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되었고, 설계가들이 설계를 하면서 머리를 쓰지 않으니 봉사전열을 열기기로 만들어놓았다고

이런 복무는 인류력사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일찍이 있어보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있어서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는 그 어떤 직책상의무기전에 한평생 인민을 하물처럼 내세우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강고히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도덕의리이고 형언할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일관당신 년도자만을 믿고 따랐은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살게 될 대양민족의 후손들에 대한 책임성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이 숭고한 도덕의리, 충실성, 책임성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하루하루가 초인간적인 정력과 로고로 수놓아지고 이 땅위에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근본요인이다.

이 땅위에 마련된 모든 기적과 행복의 열매들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철칙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만고생과 바꾼것이라는 철칙이 열사복무라는 이 시대에 그 대로 비껴흐르고 있다.

2013년 10월 어느날의 깊은 밤이었다.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을 책임진 일꾼들은 좀처럼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방금전 이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이 걱정을 꺼쳐드렸던 것이다.

조절하게 하시던 그이의 질책의 말씀이 그냥 귀에서 메아리쳤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꽃피우는 길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공화국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기에 인민군대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들마다에서 언제나 돌격대, 선봉대가 되어 날에 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고 있다. 그 앞에는 언제나 가장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라고 웨치며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는 지휘관들도 있다.

인민의 행복을 가꾸어가는 참된 복무의 길에서 자기의 전투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남김없이 발휘해가고있는 미더운 군인들.

이런 인민군대가 있어 조국과 인민의 안녕은 철통같이 지켜지고 이 땅에서 행복의 웃음소리는 날이 커가고 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그이를 따라서는 일꾼들의 두볼로 뜨거웠듯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헌신의 세계는 그같이 과연 어디인가.

생각할수록 그이에 대한 감사의 정과 함께 미림승마구락부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승마구락부로 훌륭히 일떠세워 귀중한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락주기를 위해 바치시는 그이의 불같은 열정에 고개가 숙여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선 특한 새벽기운이 떠도는 건설장에서 한시간이나 지체하지 않던 건설자나 다름없는 결함들과 수정방안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봉사전열이며 야외관람대, 실내승마훈련장 등 승마구락부의 모든 요소들을 실용적 가치가 있으면서도 세계적인 승마구락부의 체모에 어울리게 꾸리고 위한 방도들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는 그이를 우리처럼 일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창조세계, 무한한 헌신의 세계에 감사한변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미림승마구락부의 일꾼들, 건설자들이 더욱 격정에 목메었듯이 그이께서 건설장을 떠나가신 후 공사장을 찌렁찌렁 울리는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를 들었을 때였다.

(아니 그럼 경애하는 그이께서 이 공사장을 떠나가신 후 또다시 저 멀리 최전연의 병사들을 찾아가시었다던 말인가. 정말 그이의 현지지도길은 언제나 초강도 강행군길의 연속이다.)

방송원의 목소리를 눈물속에 들으며 공사장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중천에 떠오른 태양을 우리렸다.

은 누리에 발산되는 햇빛이 것처럼 따사로운것은 거대한 태양이 자기를 강그리 불태우기때문이다.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강그리 불태우시며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길만을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시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밤에 자기들을 2차례나 찾아오셨던 그이의 불같은 모습을 다시금 그려보았다. 3시간만에 다시 달려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 그 길은 마음속에 오로지 인민을 안으시고 인민을 위한 길을 걸으시는 위대한 아버지만이 걸을 수 있는 현지지도의 길, 열사복무의 령정이었다.

바로 그런 무수한 헌신의 발걸음과 더불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성스러운 열사복무의 령정에는 그 얼마나 많고 많은 인민사랑의 전설들이 꽃피어났던가.

그 불멸의 령정에는 머나먼 전선길에서 방금 돌아오시었던 아이들을 위한 소년단야영소의 현대화공사가 격정되시어 잠시라도 휴식하시기를 바라시는 일꾼들의 간절한 청도 마다하시고 그날 새벽으로 공사장을 찾아 험한 눈보라길을 달려가신 어느 일요일의 이야기도 있었고 국가의 최고령도자가 한몸의 위험을 뒤집어 미루어놓고 시운전도 하지 않은 사도를 타보시면서 그것을 리용할 인민들의 안전을 가늠해 보신 마식령의 전설도 새겨져 있었다.

여기에 한 작가의 수첩에 적혀진 글말이 있다. 《나의 옆에서 걸고있던 80리영의 한 늑은이가 누구에게라 없이 조용히 뇌이고 있었다.

얼마나 힘드셨겠소. 우리 원수님도 인간이신데! ... 아, 정말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에서도 인간이시다. 인간이시기에 그이께서도 쉬셔야 하며 인간이시기에 그이에게도 가정의 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이께서 그것을 모르시지는가? 아시면서도 그 길로는 가실수가 없으신 그이이신가?... 위대한 격변이 오늘 무한대 한 열정과 끝없는 용인력을 지니신 우리 원수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이의 지칠줄 모르는 열사복무, 이를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온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려 더 쓸 수가 없다. 이렇게밖에 더 쓸 수가 없는 이 야속한 북

아! ...》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령정은 령도자로서의 사명감만으로, 정치적이지 하나만으로 걸을수 없다. 자나깨나 그처럼 위대하고 귀중한 인민에게 행복의 꽃주단을 펼쳐줄 일념으로 심장을 뚫어는 불타는 열정, 우리 조국을 부강하고 번영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강렬한 의지와 열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바로 이 열정, 이 의지와 열망으로 심신을 녹이시며 조국 땅 그 어디에나 열사복무의 자욱 새겨가신다.

언제나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령정에 집무실을 두시고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아 수천리, 대륙을 넘어 수만리를 이어가시며 력사에 류례없는 창조적 변혁의 기적, 세계적인 사변들과 거창한 전변들을 련이어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제는 승관이 되어 그런지 열차가 집보다 더 편안하고 좋다고, 어쩌다 집에 들어가면 더 불편하다고 혼연히 말씀하실 때 목격자들인 일꾼들, 온 나라 인민의 가슴에 그 얼마나 뜨거운 격정으로

찾아들었던가. 그이께서 걸으신 열사복무의 천만리여행만큼 인민의 웃음소리는 더욱더 높아만 갔고 그이께서 울리신 땀방울, 맞으신 눈비만큼 무수한 행복의 열매들이 주렁지고 기쁨진 창조물들이 파도쳐 솟구쳤다.

장구한 인류사에서 순간이라고 할수 없는 그처럼 짧은 시간에 이룩된 인민을 위한 경이적인 기적들은 언제나 인민을 가슴에 안으시고 인민이 아직은 다 모르는 뼈를 깎는 고통과 피를 말리는 고뇌와 심혈을 바치시며 자신을 후사시주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물겨운 고성과 헌신, 뜨거운 로고와 맞바꾼 위대한 승리이다.

하긴만 인민을 위한 그 길에서 만족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열사복무의 령정만을 변함없이 걸어갈 열사복무의 맹세를 다지신 당창건 일흔둘 경축광장에서 그날로부터 10여일이 흐른 어느날 자신의 심중을

이렇게 터놓으시었다. 인민을 위해서는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어 길위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여야 한다. 한알의 모래알이 되어 뿌려진대도.

참으로 이 숭고한 뜻으로 이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위한 열사복무의 령정은 그 사랑의 열도에 있어서나 헌신의 열정에 있어서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위대한 인민사랑의 길이다.

오늘도 은파군 대청리사람들은 누구나 없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두차례나 오시었던 그대를 떠올리며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한생의 신조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아니셨더라면 우리의 운명, 우리의 농장마을이 과연 어떻게 될 뻔 했는가.

원수님과 멀어지면 순간도 못살고 원수님 떠나신 우리의 행복도 미래도 없다고. 그들만이 아닌 저 멀리 아득한 바다가운데 떠있는 이름없는 동대섬의 사람들과 백두산기슭의 림산마을 인민들, 아니 이 나라 방방곡곡의 남녀로소가 자기들의 삶의 보호자, 운명의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지나가거나 그리며 목청껏 터친다.

친근하신 그이의 정 가슴에 흘러 지나가나 그 숨결로 따뜻한 마음 하늘같은 인덕과 믿음에 끌려 우리모두 따르며 사네 그이 없인 못살아 김정은동지 그이 없인 못살아 우리

우리의 운명 김정은동지 그이 없으면 우리 못살아 그였다.

인민은 그이 없이 못산다. 성스러운 열사복무, 오로지 인민을 위한 이 결단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인민의 운명, 인민의 권리와 행복은 굳건하거나 오늘도 레일도 먼 후날에도 이 나라 인민들과 후손들은 그이의 노래를 영원토록 부르며 그 언덕을 길이길이 전해갈 것이다.

본사기자 한영수

인민을 위한 일에는 앞장서는 군대



자연재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으로 은파군 대청리를 비롯한 공화국의 큰물피해복구전투장들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방의 특성과 인민들의 요구에 맞으면서도 보다 견고한 새 집들을 일떠세우는 군인건설자들의 탐과 노력으로 하여 모든 건설대상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체모를 갖추어가며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철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무조건성, 결사관철의 위력으로 실천해가는 인민의 군대가 행기에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날로 커가는 공화국이다.

돌이켜보면 세상을 놀라우는 기적이 창조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되어가는 공화국의 그 어디에나 군인건설자들의 값높은 위훈과 성스러운 탐과 열정이 숨배어 있다.

대동강의 쭉쭉 한가운데 자리잡은 전민학술의 대전당인 과학기술전당이며 라신시의 폐해지역의 천지개벽된 마을들, 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과 양덕온천 문화휴양지, 증평남내온실농장...

건설의 대전성기를 펼친 이러한 창조물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말자는 신념의 주춧돌 가슴에 새기며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험한 일에도 온몸을 내대는 군인건설자들의 노력이 안아온 것이다.

피해복구전투에 동원되여서도 자기들은 주민지역의 물과 공기만 마시면 된다고 하면서 낮과 밤을 모르고 건설을 해체한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이며 불같은 창가마다에서 흘러나오는 인민의 기쁨넘친 웃음소리를 뒤두고 조용히 초소로 떠나간 그들을 두고 인민들은 우리 군대라고 자랑스럽게 부르고 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매복과 흠모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선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청년들을 시대의 앞장에 당당히 내세워주시는 청년중시의 정치를 펼치고계신다.

청년문제는 그 어느 나라나 최대의 관심사로 되고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청년문제를 흠바로 해결하지 못하여 시대의 선구자가 되어야 할 청년들이 락오자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청년들이 청춘시절을 인생에 다시없을 값높고 보람찬 시절로 빛내일 숭고한 지향을 안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서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강그리 발휘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청년들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크게 믿고 내세워주시는 절세의 위인이 계시기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인 주제101(2012)년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레임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언제나 골바로, 탐을 따라 앞으로! 김정은 2012.1.26》라는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어 청년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청년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워주시고 청년들을 위한 대회도 여러차례 마련해



주시였으며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청년들의 명철인 청년절도 크게 경축하도록 해주시고 머나먼 전선시찰의 길에서 청년절을 맞은 온 나라 청년들에게 사랑의 축하문도 보내주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청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멀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으시어 사랑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안겨주신다. 몇해전 어느날이었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머나먼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발전소건설장을 돌아보시니 신심이 생긴다고,

이런 험한 곳에서, 상상할수 없는 혹한속에서 거창한 대상 건설을 한다는것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수성된 조선청년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대상이면서도 우리 당 력사에 청년들이 세기는 또 하나의 빛나는 자욱으로 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발전소건설장에서 발휘되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애국심은 우리 나라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 된것을 힘있게 과시하는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새로운 시대로 갈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둘까지 공사를 완공

함으로써 우리 당의 70년력사는 청년중시의 력사,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력사라는것을 온 세상에 떨치자고 하시며 완공의 기쁨속에 이곳에서 청춘들의 대합창공연을 진행하자고, 자신께서 꼭 보시겠다고, 그날 발전소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자고 사랑의 약속도 남기시었다.

그이께서 청년들을 한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한사람한사람 친히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사진을 찍어주시는 수많은 청년들가운데는 나라의 방신을 지켜선 군인들도 있고 나라의 재부를 늘여가는 로동자청년들도 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청년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한몸에 안아 따듯이 보살피주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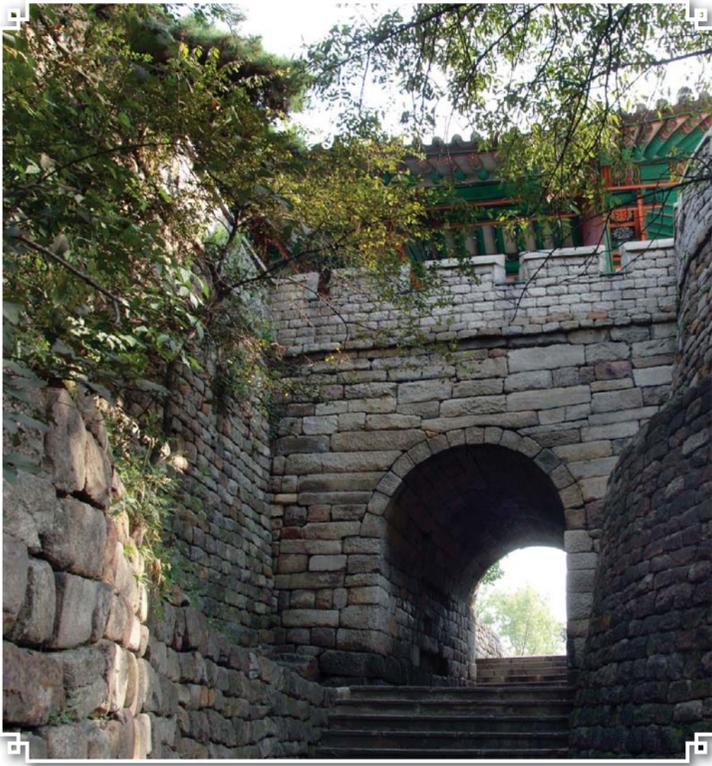
자애로운분위기에 공화국 청년들은 부모형제에게도 감추어온 마음속 진정을 그이께 서슴없이 아뢰인다. 친아버지에게 매달리듯 새로 태어난 자식의 이름도 지어달라고 아뢰인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공화국에서와 같이 청년문제가 궁지높이 해결되고 청년강국이 라는 소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하기에 공화국을 방문한 세계의 인사들은 조선에서는 청년들이 지위가 훌륭히 담보되고 그들이 사회발전의 기동으로 되고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고있고 하던것을 청년들이 정말 부럽다고 찬사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송정수

모란봉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2)

《행복의 문》 - 칠성문



모란봉은 아름다우면서도 역사유적이 참으로 많은 곳이다. 울밀대를 지나 칠성문으로 향하면서 리일섭연구사는 그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칠성문은 6세기 중엽 고구려가 평양성을 쌓을 때 세운 내성의 북문으로서 그 이름은 북쪽 하늘가에 떠오르는 북두칠성의 별자리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무술을 닦지 못한 사람이나 변방에 번을 서러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 《칠성문을 나들지 못했다》고 했다고 한다. 한것은 무술을 닦으러 가는 사람들도 칠성문을 통하여 나갔고 변방에 번을 서러 떠나는 군사도 칠성문으로 나갔기 때문이었다. 칠성문을 나들지 못한 탓에 사랑을 잃어버린 한 총각이 사랑하는 처녀에게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무술을 닦아 집장에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와 처녀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때부터 칠성문은 《행복의 문》으로 불리워왔다고 한다. 비록 전설이지만 외적의 침

입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신 선조들의 애국의 넋을 감명깊게 느낄수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칠성문에 이르렀다. 마루선들과 지붕면들이 잘 짜여있는 칠성문의 흔적마함 각지방과 화려한 모루단청은 문루의 품위를 한껏 돋구어 주고있었다. 《칠성문은 두 성벽을 약 10m사이를 두고 서로 어긋나게 쌓고 그 두 성벽사이에 그와 직각되게 가로세웠는데 성문을 이렇게 형성한것은 고구려산성문의 특징의 하나로서 고구려시기 우리 민족의 높은 성문건축술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도 칠성문에 여러번 와보았지만 리일섭연구사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모든것이 새롭게만 느껴졌다. 고구려, 고려, 조선봉건왕조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해져오는 칠성문,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선조들의 애국적인 투쟁이야기가 깃들여있는 유적이어서 그런지 문루의 기둥이며 성벽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돌들도 무심히 볼수 없었다. 글본사기자 김철 사진본사기자 동창현

꽃집에 넘치는 정서

평양시 증구역에 가면 꽃집으로 불리우는 가정이 있다. 동안1동 63민민반에 살고있는 김영숙녀성의 가정이다. 그의 가정에는 제라니움, 줄장미, 금전화를 비롯한 꽃들과 사시정월 푸름을 잃지 않는 주목, 향나무 그리고 관상적 효과와 약용가치가 큰 선인장들이 가득 차있다. 남달리 화초가꾸기를 즐겨하는 김영숙녀성은 배란다를 여가까지 식물들로 이채롭게 단장하고 정성다해 가꾸고있다. 얼마전 취재차로 김영숙녀성의 집에 들어서니 그윽한 꽃향기가 온몸을 감쌌다. 이른아침 화초들을 먼저 둘러보아야 일이 손에 잡히고 희귀한 화초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구해놓아야 마음이 즐겁다는 김영숙녀성이었다. 이렇게 품들어 마련하고 가꾼 화분들이 그의 가정에서 100여개나 된다. 많은 꽃들을 가꾸기가 힘

들지 않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는 그와 반대로, 그윽한 향기속에 활짝 피어난 꽃들을 바라보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는것이였다. 오래동안 피어있는 꽃들과 밝고 선명한 색깔의 꽃들을 잘 배합하여 심어 언제나 아름다운 꽃속에 물려있는 그의 집으로는 꽃씨를 구하러, 꽃배방법을 배우러 동안의 주민들이 때없이 찾아온다. 그런 그들에게 꽃씨들을 안겨주기도 하고 꽃을 가꾸면서 터득한 경험들도 차근차근 알려주는 김영숙녀성이었다. 가정에서의 꽃가꾸기에 대한 경험과 상식이 부족하여 애를 먹던 사람들도 그의 《강의》를 받고는 꽃을 더 잘 가꾸었다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곤 한다. 화초애호가 기쁨, 그것은 단순히 자기가 품들여 키운 아름다운 꽃들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한가정

의 울라리를 벗어나 거리와 마을, 일터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궁지와 보람이 아니라. 지금 김영숙녀성이 살고있는 아파트의 어느 가정에서나 경쟁적으로 꽃들을 키우고있다고 한다. 보석과도 같은 애국의 마음이 자양분이 되어서인가 더욱더 아름답게만 보이는 꽃송이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이렇듯 풍만한 정서를 안겨주는 꽃가꾸기와 더불어 애국의 향기, 행복의 향기가 차넘치는 생활은 얼마나 좋은가. 본사기자 김춘경



어휘와 표현을 통해 본 조선어의 우수성

오늘 지구상의 많은 민족들은 수천개의 서로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중에서 사용인구가 5000만명이 넘는 언어는 조선어를 비롯하여 10여개정도 밖에 안된다고 한다. 조선어가 이렇듯 오랜 역사를 가진 우수한 언어로 빛을 뿌려온것은 우리 말이 말소리가 아름답고 류창하며 어휘와 표현이 대단히 풍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웃음과 관련한 어휘와 표현만 해도 무려 800개가 넘는다. 그중에는 《하하》, 《허허》, 《호호》, 《해해》 등 웃음소리를 직접 나타내는 말들도 있고 《방글방글》, 《방글방글》, 《해물해물》, 《씨물씨물》 등과

같이 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들도 아주 많다. 사물현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들도 매우 풍부하다. 밥을 만들 때에는 《짓다》라고 하고 죽을 만들 때에는 《쑤다》라고 하는것을 비롯하여 《떡을 치다》, 《만두를 빚다》, 《국수를 두르다》, 《지짐을 지지다》, 《두부를 얇다》, 《김치를 담그다》 등 여러가지 표현이 쓰이는데 이것만 보아도 우리 말의 동사들이 얼마나 풍부하게 발달되었는가 하는것을 잘 알 수 있다. 물이 흐르는 현상 하나를 놓고도 그 모양과 소리에 따라 《졸졸》, 《졸졸》, 《팔팔》, 《팔팔뚝뚝》, 《와와》,

《철철》 등으로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있다. 하기에 많은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정도를 본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첫째가는 자리에 설것이다. 조선어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능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공화국에서는 언어생활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외래어, 비문화적인 요소들이 청산 및 정리되고 오늘과 같이 우수한 조선어가 인민들속에 널리 리용되고있으며 평양문화어는 주제적이고 민족적인 특성이 살아나는 언어로 더욱 발전하고있다. 본사기자

널리 사용되고있는 건강검진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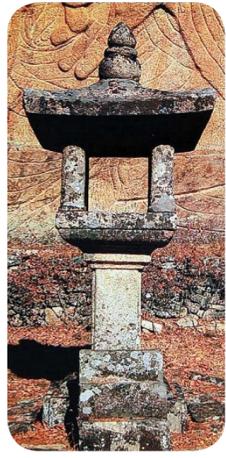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교류사에서 개발한 지능형순환화프로그램 건강검진 《활력》 2.0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고있다. 건강검진 《활력》 2.0은 지능형순환화프로그램 건강검진 《활력》 2.0의 새로운 판본으로서 혈압, 맥박, 시력, 청력, 폐활량, 호흡수, 혈액산소, 심리상태, 절음수 등을 측정하고 리력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며 그에 알맞는 건강검진지시기능을 주는 건강검진프로그램이다. 새로 개발된 이 프로그램에는 이전 판본에 비하여 호흡수, 혈액산소, 심리상태측정기능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운동지시기능도 더욱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리용자관리기능을 새로 추가하여 현대의 손전화기로 여러명의 리용자들이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자료리리를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종전과는 달리 혈압교정기능에 의하여 혈압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나이가 많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혈압리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리용하여 걷기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매일 걷는 걸음수와 소비된 에너지를도 관찰할수 있으며 체중인들의 달리기운동과정에 소비되는 에너지를도 정확히 측정해낼수 있다. 또한 운동지시기능을 리용하여 시력, 청력을 보호하고 몸무게와 혈압을 조절할수 있는 운동들을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본사기자

9월의 절기에는 백로와 추분이 있다. 백로란 맑은 이슬이 내리고 가을기운이 스며드는 때라는 뜻이다. 백로때에 이르러 산과 들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머루, 다래, 돌베개 등 산열매들이 익기 시작한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 조를 비롯한 농작물

들에 대한 가을과 밀보리서 뿌리기를 하였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목화따기도 하였다. 산간지대에서는 약초캐기와 산열매따기도 하였다. 추분은 여름기운이 완전히 가서지고 가을이 된다는 뜻으로서 이날 낮과 밤의 길이는 거의 같아지며 그후부터 밤보다 낮이 점점 짧아진다. 추분때에 이르러 눈에서는 비가올을 하였으며 밭에서는 콩을 비롯한 밭곡식을 거두어들였으며 밀보리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올해의 백로는 9월 7일, 추분은 9월 22일이다. 본사기자

전역기념일 모길상돌 등

모길상돌등은 강원도 금강산 내금강리 만폭동의 묘각산앞에 있는 고려시기의 돌등이다. 이 돌등은 묘길상앞에 있는데 넓적한 받침돌우에 기둥들을 세우고 그우에 사방이 트인 불집돌, 머리돌을 올려놓은것이다.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높이는 3.66m이다. 아래에 방형의 받침대를 놓고 그우에 높이 63cm의 기둥들을 4개 세웠다. 불집기둥들은 안쪽만 모가 나게 하고 다른 3면은 둥글게 다듬어 부드러운 곡선을 지었다. 불집기둥돌우에 사가지 붓모양의 지붕돌을 올려놓았다. 머리부분에는 둥글게 다듬은 돌(부주)을 2개 포개 놓았다. 이 돌등은 불집대돌과 지붕돌이 큰것이 특징이다. 돌등의 받침대돌은 잘 다듬어졌으며 불집대돌의 선들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



민족시문학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정법은 고구려의 승려, 시인이다. 그는 시를 잘 지어 이름이 높았다. 그는 한때 이웃나라에 가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시로 명성을 떨치었다. 그의 생애와 문학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해지지 않고 다만 《해동역사》

에서 《외로운 돌》 한편이 실려 전해지고있다. 이 시는 《말이 아름답고 격이 높아》 내외의 많은 사람들속에서 불리워졌다고 한다. 《외로운 돌》(《고석》) 드높은 바위 하늘에 곧추 솟아 뉘어나뉘은 호수 사방으로 굽어보네

모며 구름속에 홀로 선 그 모습 장하여라 이 시는 정법사가 이웃나라에 가있을 때 어느 호수가의 자연풍경을 노래한것이다. 시는 공중에 높이 솟은 바위를 중심으로 그결에 서있는 나무, 호수의 맑은 물결, 붉게 타는 노을빛 등 아름다운 자연의 풍치를 선명하게 그려보이고있다. 시는 호수가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바위의 장쾌한 모습에 대한 생동한 시적묘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썩씩고 굳건한 기상을 찬양하였다. 작품은 시어가 아름답고 격이 높아 그 나라 사람들속에 널리 불리워졌으며 그곳 명시선집에도 올라있다. 본사기자

사화

천 인 독 (3)

글 전철호, 그림 리성일

쌀쌀하게 울리는 안해의 말에 응기는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올랐다. 《산돼지 잡으러다가 집돼지 놓치라우?》 《이보세요, 어느제 산돼지고 집돼지인줄은 모르겠지만 똑쌍은 일만은 누구든 먼저 나서야만 할 일이에요. 그래야 온 마을이 따라나설 거란 말이예요.》 《차, 입자가 뭘 안다구 그래?》 《다른 일은 잘 몰라도 똑쌍은 일만은 알아요. 생각해 보시라요. 해마다 물란리토 사람들이 해를 입고있는데... 우리 진작 길바닥을 높이고 개울쪽을 쌓아야 했어요. 그랬더라면 딸도 잃지 않았을 텐데...》 울먹이며 말을 하던 안해는 오열을 터쳤다. 응기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안해의 어깨를 부여잡았다. 《됐소, 됐소. 다 제명이 짱이 그렇게 된건데 왜 자꾸 지나간 일을 생각하며 가슴을 허미는거지요?》 안해는 자기의 어깨에서 응

기의 손을 떼어내며 고개를 저었다. 《지나간 일이라구요? 지난해 물란리를 벌써 잊으셨어요? 지난해는 랑군님이 물에 빠져 봉변을 당했지만 올해는 내가 또 그렇게 될지 아니면 다른 집사람들이 그렇게 될지 알게 뭐나요. 똑을 쌓는 일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나 랑군님을 위한 일이에요. 자기를 위한 일인 데도 남을 위한 일처럼 여기면서 강건너 불보듯 한다면 우리 마을사람들은 언제 가도 물귀신의 화를 면할수 없어요. 이보세요, 똑을 쌓는 일에 우리 집에서 먼저 나서자요. 예?》 응기는 본의아니게 안해의 마음을 괴롭힌것이 미안하여 말이 섰듯 나가지 않았다. 《왜 대답을 안하세요? 장부일엔 충천금이라는데 랑군께서 생시에든 꿈에서든 일단 누구와 언약을 하셨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데도 끝까지 지키는것이 대장부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응기는 숨이 격

막히는듯 하였다. 아내자의 마음도 이리할진대 사내란 사람이 똑막을 방책을 제 머리로가 아니라 기껏 꿈에나 메달리려 하였으니 그게 무슨 대장부야. 목목부담인 응기를 지켜보던 안해가 함숨을 쉬더니 나지막하나 힘있는 어조로 말을 하였다. 《정 나설 마음이 없으시다면... 저라도 나서겠어요. 한삼두삼 흠을 때움기느라면 온 마을이 떨쳐나설 때가 있겠으니 어떻게든 끝장을 보게 되겠지요.》 고개를 번쩍 쳐든 응기의 두눈에서는 불이 이글거리는 것 같았다. 바로 그거다. 제 집사람들부터 떨쳐나선다면 어찌 온 마을이 따라나서지 않겠는가. 나는 왜 안해처럼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건 다 자기 집사람들과 마을사람들을 믿지 못했기때문일것이다. 응기는 자기의 생각을 떠워준 안해의 손을 꼭 그러 쥐었다. 《고맙소.》 다음날 응기는 안해와 함



지어날랐다. 응기는 안해의 말대로 온 동네가 따라나서니 사가가 되었다. 못처진 힘은 실로 대단했다. 마을사람들이 달려보니

일자리가 폭폭 났다. 그런데 둘러보니 신통히도 부자집사람들만 보이지 않았다. 땅부자인 백부자네도 가게주인 류부자네도 누구 하나 나오지 않았다. 마을사람들은 부자들이 나와야 알건달이나 부리고 소란이나 피울텐데 차라리 잘됐다고 좋아했다. 하지만 응기의 생각은 달랐다. 그네들도 마을에 태운 물은 사람일인데 물에 타스리는 역사가 저희들에게도 유익함을 모르지 않을것

백부자를 찾아갔다. 찾아온 사연을 들은 백부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코웃음을 쳤다. 《이보라구, 내 지금껏 사람이 물귀신을 이겼다는 말도 들었네. 괜히 굶어부스럼같은 역사질을 그만두고 농사나 착실하게 지으라구. 불과중을 눈잡아서 땅이나 때우지 말라구.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구.》 응기는 울컥 눈자가 치밀어올랐다. 동냥은 못 줄망정 똑박은 깨지 말겠다는데 저 백부자는 무슨 심보로 저러는 것일까. 응기는 분기를 애써 누르며 다시한번 사정했다. 《인중승천이라고 사람이 많으면 하늘도 이긴다는데 온 마을이 힘을 합치면 그까진 물귀신 하나 독하지 못하겠소이까? 이 집의 어르신만 역사에 응해준다면 다른 부자집들에서도 따라...》 응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부자가 발을 탕 구르며 소레기를 질렀다. 《뭐가 어찌고 어찌? 네가 감히 혼시하러 들어? 내 만일 너희 가난뱅이들이 물귀신을 다스린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장을! 무식하면 분별이 없다더니 네마위 인승무레기들이 하늘을 이겨 보겠다고? 당장 똑쌍기를 꺼내. 그렇지 않다면 땅을 때울줄 알아라.》

속 달과 뜻

- ◆ 가을밭에 가면 가난한 친정에 가는것보다 낫다. 가을철의 밭에는 먹을것이 많음을 이르면 말.
- ◆ 닭이 친이면 봉이 한마리.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가운데는 뛰어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 ◆ 화가 흠이비 동심하듯. 화가 불끈불끈 솟는 모양을 이르는 말.

레이 쫓으세요

어머니의 생일날 저녁 부엌에 가득 쌓인 빈그릇들을 본 딸이 정답게 말하였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생일인데 설거지를 하지 마세요.》 딸의 대견한 말에 저오기 감동된 어머니가 《괜찮다. 엄마가 하지.》 하며 팔을 걷어붙이자 딸이 다시 말하였다. 《오늘은 그냥 쳐두고 레일 쫓으면 되지 않나요?》